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과,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정동 및 신경과학섹션,² 정신과학교실,³ 국립공주병원 정신과⁴

장형윤^{1,2} · 이선구¹ · 김경란^{2,3} · 이수영^{2,3} · 박진영^{2,4}
김은주³ · 강지인^{1,2} · 이 은^{2,3} · 안석균^{2,3}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K-AIHQ)

Hyoungyoon Chang, MD^{1,2}, Seon-Koo Lee, MD¹, Kyung Ran Kim, MD^{2,3},
Su Young Lee, MD^{2,3}, Jin Young Park, MD^{2,4}, Eun Joo Kim, MD³,
Jee In Kang, MD^{1,2}, Eun Lee, MD, PhD^{2,3} and Suk Kyoong An, MD, PhD^{2,3}

¹Department of Psychiatry,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Goyang, Korea

²Section of Affect and Neuroscienc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³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Gongju National Hospital, Gongju, Korea

Received September 16, 2008

Revised December 10, 2008

Accepted December 12, 2008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k Kyoong A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696-6 Tanbeol-dong,

Gwangju 464-100, Korea

Tel +82-31-760-9410

Fax +82-31-761-7582

E-mail ansk@yuhs.ac

Objectives We studi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 (K-AIHQ), which measures hostile social-cognitive biases for use in the research on paranoia.

Methods The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of the AIHQ with concern for the cultural differences were done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cedure. A sample of 83 healthy volunteers completed the K-AIHQ.

Results The scores of the K-AIHQ were comparable to the results of the original studies. The Paranoia Scale was correlated with the K-AIHQ, but Magical Ideation and Perceptual Aberration scal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K-AIHQ. The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he items in each situation were in the acceptable range.

Conclusion The KAIHQ seems to be a reliable and valid test to measure the hostile social cognitive biases of patients with paranoi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9;48:29-35

KEY WORDS Paranoia · K-AIHQ · Reliability · Validity.

서 론

편집증(paranoia)은 의심, 불순한 의도를 느낌, 분개, 외부의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다는 느낌 등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일관된 사고방식이다.¹⁾ 한때 망상장애 환자를 뜻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특정한 사고방식 혹은 사고의 경향성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편집증적 사고 방식이 정상인으로부터 정신병적 양상의 역치(threshold)를 넘는 수준의 망상장애 환자에게까지 두루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증을 연속선상에서 설명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비병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정신 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망상까지 포함되겠다. 편집증이 정상인으로부터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망상 수준에 걸쳐 연속선상에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지되고

있으며, 편집증의 정도는 인지, 정서, 행동상의 차이와 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⁴⁾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가지며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좀 더 적개심을 가지는 경향을 가진다.⁵⁾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편집증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 판단을 하려는 경향과 연관이 있었다.^{6,7)} 비임상적 수준의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사고 편향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립적인 행동을 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³⁾

편집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인지 편향(social cognitive bias)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귀인 양식 설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이하 ASQ)^{8,9)}와 내

적, 인적, 상황적 귀인 설문(Internal, Personal,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 이하 IPSAQ)¹⁰⁾ 등이 있다. 이들 도구는 특정 결과가 어디서-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기인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편집증의 평가는 지각한 위험이 실제한다고 느끼는지, 얼마나 의도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두 설문 도구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 대한 사회 인지 편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개심(hostility)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들도 있지만(Buss-Durkee Hostility Scale,¹¹⁾ Aggression Questionnaire¹²⁾) 이들은 모두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적개심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지각된 적개심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Combs 등⁵⁾은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이 단서가 부족하여 타인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편향된 사회 인지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적대적 사회 인지 편향성을 평가하는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Ambiguous Intention Hostility Questionnaire, 이하 AIHQ)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의도의 모호성에 따라 다른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피험자들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 적개심, 그리고 공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HQ의 한국어판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편집증의 평가와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유용성과 제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판 AIHQ의 개발은 정신분열증 연구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대상

83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에 설문지를 보고 이해하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인터넷에 실린 피험자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 중 정신과적 과거력 및 현병력이 없다고 보고하는 남자 25명과 여자 5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2.2 ± 4.4 세였고 평균 교육기간은 14.2 ± 3.6 년이었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허가아래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다.

도구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는 모두 15가지 부

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5가지(1, 7, 9, 11, 15번 문항)는 분명하게 의도적인 상황, 5가지(2, 4, 6, 12, 14번 문항)는 분명히 우발적인 상황, 나머지 5가지(3, 5, 8, 10, 13번 문항)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별첨 참조). 상황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blame)을 묻는 정도, 적개심(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각각의 상황이 스스로에게 벌어졌다고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험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 “확실히 그렇다”), 이 일로 피험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1 “전혀 화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화난다”),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탓할 것인지(1 “전혀 아니다”부터 5 “아주 많이 한다”)에 대해 스스로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개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는 피험자가 주관식으로 작성한 답을 읽고 평가자가 1점(적개심의 경우 “전혀 적대적이지 않다”, 공격성의 경우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에서 5점(적개심의 경우 “매우 적대적이다”, 공격성의 경우 “매우 공격적이다”)으로 이루어진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적개심 평가의 경우, 피험자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답했다면 1점을, “일부러 한 행동이지만 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면 3점을,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답했다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공격성 평가의 경우, 피험자가 상대에게 “아무런 대응도 않겠다”라고 답했다면 1점을, “왜 그랬는지 묻겠다”라고 했다면 2점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했다면 3점을, “호통치겠다” 혹은 “소리를 질러 화내겠다”라고 했다면 4점을, “싸우겠다”라고 했다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번역과 역번역은 문항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번역하면서 그 내용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 문화권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정신과 의사 2인이 번역을 수행하고, 이를 다시 영어 문화권에서 성장한 또 다른 정신과 의사 1인이 역번역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어학자 1인이 자문하여 정신과 의사 4인이 회의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최종 문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타당도 연구를 위해 사용된 비교 척도에 관한 설명이다.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2,13)}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될 수 있는 비임상적인 편집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을 1에서 5점 사이의 라이커트 척도(Li-

kert scale)를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가 된다. 내적 일치도 Chronbach's coefficient $\alpha=0.84$ 로 높은 편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안정적이다($r=0.70$). 한국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¹³⁾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였으며, 한국어판 편집증 척도의 $\alpha=0.88$ 로 원척도에 상당한다.

귀인 양식 설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8,14)}

6가지 긍정적 상황과 6가지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무엇이 원인이라고 여기는가’를 7점 라이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게 한 척도이다. 개발자들은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우울증상이 있을수록 어쩔 수 없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종체적인 귀인 양식을, 외부보다는 내부로 귀인시키는 사고 양식을 보였다. 내적 일치도 Chronbach's coefficient $\alpha=0.75$ 및 0.72로 높은 편이었으며 검사 재검사 일치도 역시 항목 별로 $r=0.58$ 부터 0.70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통계 분석시 사용한 ASQ-bias 점수는 나쁜 결과에 대해 자신의 탓을 한 문항의 점수에서 좋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탓을 한 점수를 뺀 혼합 지표값(composite scores)이다. 국내에서는 이영호¹⁴⁾에 의해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지각 이상 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15,16)}

Chapman 등이 개발한 이 척도는 비임상적 수준의 피험자들의 별난 믿음(unusual belief)과 경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병적 증상과 비슷한 지각 경험을 측정하는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양익홍과 최명구¹⁶⁾가 그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고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높은 내적 합치도($\alpha=0.92$) 및 다른 정신병 경향성 척도들과 높은 상관도를 보인 바 있다.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scale)^{16,17)}

Chapman 등이 개발하였으며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난 믿음과 마술적 사고의 존재를 평가하며 역시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 역시 양익홍과 최명구¹⁶⁾에 의해 그 신뢰도 및 타당도가 보고되었으며 높은 내적 합치도($\alpha=0.81$) 및 타당도를 보인 바 있다.

자료의 처리 및 통계 분석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를 평가하는 세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그리고 평가자가 피험자의 주

관식 답안을 읽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적개심(hostility)과 공격성(aggression)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자 간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40명의 결과를 2명의 평가자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평가를 하였으며 상황별 평가 점수의 합을 가지고 intraclass coefficient를 구하였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평가를 위해 다른 척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즉, 저자들은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편집 증상, 적개심, 타인으로의 귀인양식 등 개념을 평가하는 다른 도구들, 즉,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의 점수와는 양의 상관성을, 귀인 양식 설문지(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의 ASQ-bias 점수와는 음의 상관성을 가지기를 기대하였고, 이론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신 병적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들-지각 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과 마술적 사고척도(magical ideation scale)-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원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는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로 삼았다. 성별을 첫 번째 단계의 변수로, ASQ-bias, 지각 이상 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scale) 점수를 두 번째 단계 변수로, 모호한 상황에서의 K-AIHQ의 blame, hostility, aggression 점수를 중재 변수로 입력하였다. 모든 통계 검정의 유의 수준은 $p<0.05$ 인 경우로 보았다.

결 과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를 비롯하여 타당도 평가를 위해 함께 시행한 여러 설문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를 평가하는 세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53$, 분명히 의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61$, 분명히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75$ 였다. 적개심과 공격성 항목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의 측정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준거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예상한대로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와는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 이상 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 및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scale)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3).

구성 타당도 분석 결과, ASQ-bias, 지각 이상 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점수는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R^2=0.314$, $R^2\Delta=0.344$, $F(3,66)=11.515$, $p<0.0001$). 성별과 편집증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 중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 적개심(ho-

stility), 공격성(aggression) 점수는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을 유의한 수준으로 설명하였다(Block 1, $R^2=0.425$, $R^2\Delta=0.131$, $F(3,63)=9.486$, $p<0.0001$).

고 찰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신 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편집증적 사회 인지 방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귀인 양식(attributional style)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10,18}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사고성향이 편집증의 핵심 사고방식으로 가정되고 있으나 이제껏 이 같은 핵심 특징을 평가하는 도구는 부족했다.

수령 타당도의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 적개심 설문이 paranoia scale 및 ASQ-bias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를 기대하였다. 원 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paranoia scale은 의도가 모호한 상황 및 분명히 의도적인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 및 적대감의 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상황 중에서 타인의 의도를 알아차릴 단서를 파악해내는 능력의 부족^{3,19}은 편집증적 사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에 대해 좀 더 많이, 타인의 탓을 하고, 좀 더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ASQ-bias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원 척도에서는 수령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를 비롯하여 Paranoia/Suspiciousness Questionnaire²⁰와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¹⁰를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모두 편집증적 사고방식으로서의 귀인 양식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된 척도로 수령 타당도를 가지기에 적절하였다.

한국어판 설문을 시행할 때에는 이들 중 한국어로 표준화된 설문 도구는 없었기에 표준화된 귀인 양식 평가 설문지인 ASQ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긍정적 결과에 대해 얼마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척도였다. 또한 부정적 상황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에서의 귀인 양식(attributional style)도 측정하는 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이 정신병적 경향성

Table 1. Summary of measures

Measure	Mean (SD)	Sample range
Paranoia scale	43.2 (12.7)	21-79
Perceptual aberration	7.66 (6.9)	0-33
Magical ideation	10.2 (4.7)	3-23
BDI	10.7 (9.4)	0-54
SAS	9.82 (4.8)	1-19
ASQ-bias	-0.08 (1.1)	-3.0-2.7
K-AHQ index scores		
Blame ambiguous	2.7 (0.6)	1.1-3.9
Blame intentional	3.8 (0.5)	1.6-4.9
Blame accidental	2.0 (0.5)	1.0-3.8
Hostility ambiguous	1.4 (0.3)	1.0-2.2
Hostility intentional	2.0 (0.5)	1.0-3.4
Hostility accidental	1.0 (0.1)	1.0-1.4
Aggression ambiguous	1.5 (0.3)	1.0-2.6
Aggression intentional	1.9 (0.5)	1.2-3.6
Aggression accidental	1.3 (0.3)	1.0-3.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AS : Schizotypal ambivalence scale, ASQ-bias : Composite attributional style scores on all of the internality items for bad outcome-those for good outcome

Table 2. Interrater reliability analysis (N=40)

Situation	Hostility	Aggression
Ambiguous	0.861	0.709
Intentional	0.929	0.876
Accidental	0.835	0.801

Intraclass coefficient : $p<0.001$

Table 3. Validity correlations of the K-AHQ

Measure	Convergent		Divergent	
	Paranoia	ASQ-bias	Perceptual aberration	Magical ideation
Blame				
Ambiguous	0.42*	-0.07	0.26	0.31
Intentional	0.51*	-0.06	0.25	0.22
Accidental	0.31	-0.17	0.16	0.32
Hostility				
Ambiguous	0.43*	-0.23	0.15	0.23
Intentional	0.37*	-0.02	-0.02	0.02
Accidental	0.12	-0.03	0.04	0.24
Aggression				
Ambiguous	0.11	-0.07	0.23	0.07
Intentional	0.11	0.06	0.21	0.02
Accidental	0.22	-0.06	0.22	0.30

* : uncorrected $p<0.001$

(psychosis proneness)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구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정도 및 적개심의 정도를 평가하지만 비일상적인 믿음이나 경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의 구성 타당도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해 증명되었다. 성별, ASQ-bias, 지각 이상 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scale) 등의 다른 편집증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여도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도(blame)와 적개심 점수는 paranoia scale 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환자들이 직접 평정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blame)을 측정한 세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상황에 따라 Cronbach's $\alpha = 0.53 \sim 0.75$ 로 원척도의 0.84~0.85에는 못 미치지만 용납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평가자가 환자들의 주관식 답변을 보고 직접 평가하는 적개심, 공격성 항목의 평가자 간 일치도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을 편집증적 사회인지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적다는 점, 피험자들의 연령 분포가 넓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즉, 편집증성이 없는 젊은 피험자들의 편집증적 성향만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척도 자체의 타당도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편집 증상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연령 분포의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게서도 의도가 다른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을 평가하기에 신뢰할 만하고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분별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 : 편집증 ·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 신뢰도 · 타당도

Acknowledgments

본 논문의 요지는 2008년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본 연구는 2007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장기해외연수교수연구비의 지원에 의함 것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에 도움을 준 겨레밀큰사전편찬사업회(겨레밀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새어회팀 김태훈 책임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FERENCES

- 1) Fenigstein A, Vanable PA.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 Pers Soc Psychol* 1992;62:129-138.
- 2) Combs DR, Michael CO, Penn DL. Paranoia and emotion perception across the continuum. *Br J Clin Psychol* 2006;45:19-31.
- 3) Combs DR, Penn DL. The role of subclinical paranoia on social perception and behavior. *Schizophr Res* 2004;69:93-104.
- 4) Peters ER, Joseph SA, Garety PA. Measurement of delusional ideation in the normal population: introducing the PDI (Peters et al. Delusions Inventory). *Schizophr Bull* 1999;25:553-576.
- 5) Combs DR, Penn DL, Wicher M, Waldheter E.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 (AIHQ): a new measure for evaluating hostile social-cognitive biases in paranoia. *Cognit Neuropsychiatry* 2007;12:128-143.
- 6) Garety PA, Freeman D. Cognitive approaches to delusions: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Br J Clin Psychol* 1999;38:113-154.
- 7) Moritz S, Woodward TS. Jumping to conclusions in delusional and non-delusional schizophrenic patients. *Br J Clin Psychol* 2005;44:193-207.
- 8)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Y, Metalsky GI, Seligman MEP.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 Ther Res* 1982;6:287-299.
- 9) 이영호 원호택. 우울증과 인과귀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0;9:111-133.
- 10) Kinderman P, Bentall RP. A new measure of causal locus: the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 *Pers Individ Dif* 1996;20:261-264.
- 11) Buss AH,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 Consult Psychol* 1957;21:343-349.
- 12) Buss AH,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 Pers Soc Psychol* 1992;63:452-459.
- 13) 이훈진, 원호택.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 심리 학회지: 임상* 1995;14:83-94.
- 14) 이영호. 귀인양식, 생활사전, 사건귀인 및 무방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박사학위]. 서울: 서울대학교; 1993.
- 15) Chapman LJ, Chapman JP, Raulin ML. Body-image aberration in schizophrenia. *J Abnorm Psychol* 1978;87:399-407.
- 16) 양의홍, 최명구. 정신병 경향성 척도의 판별력 연구. *교육심리 연구* 2001;15:337-355.
- 17) Eckblad M, Chapman LJ. Magical ideation as an indicator of schizotypy. *J Consult Clin Psychol* 1983;51:215-225.
- 18) Kinderman P, Bentall RP.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 Abnorm Psychol* 1997;106:341-345.
- 19) Turkat I, Keane S, Thompson-Pope S. Social processing errors among paranoid personalities. *J Psychopathol Behav Assess* 1990;12:263-269.
- 20) Rawlings D, Freeman JL. A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paranoia/suspiciousness. *Br J Clin Psychol* 1996;35:451-461.

□ 부 록 □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상황을 읽고 그 상황이 당신에게 발생하였다고 상상하십시오. 각각의 상황에 대해 그 것의 간단한 이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상황이 당신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탓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대해 당신이 할 행동을 쓰십시오.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쓰시면 안됩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라도 쓰셔야 합니다.

1.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줄 서 있는 당신 앞에 갑자기 새치기를 한 다음, “내가 급해서요”라 하였다.

- A.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갑자기 새치기를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쓰십시오.
-

- B.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당신 앞에 갑자기 새치기를 한 것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아마도 그렇지 않다.
4. 아마도 그렇다. 5. 거의 그렇다. 6. 확실히 그렇다.

- C.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1. 전혀 화나지 않는다. 2. 3.
4. 5. 매우 화난다.

- D. 줄 서 있는 당신 앞에 갑자기 새치기를 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을 얼마나 탓하시겠습니까?

1. 전혀 아니다. 2. 3.
4. 5. 아주 많이 한다.

- E.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

2. 당신 친구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당신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 A. 당신 친구가 당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쓰십시오.
-

- B. 당신 친구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아마도 그렇지 않다.
4. 아마도 그렇다. 5. 거의 그렇다. 6. 확실히 그렇다.

- C.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1. 전혀 화나지 않는다. 2. 3.
4. 5. 매우 화난다.

D. 당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에 대해 당신 친구를 얼마나 헛하시겠습니까?

1. 전혀 아니다. 2. 3.
4. 5. 아주 많이 한다.

E.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3. 3주 전부터 새 직장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새 직장 동료를 보았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인사도 없이 당신을 지나쳐 갔다.

A. 당신의 직장 동료가 인사도 없이 지나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쓰십시오.

B. 당신 직장동료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아마도 그렇지 않다.
4. 아마도 그렇다. 5. 거의 그렇다. 6. 확실히 그렇다.

C.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1. 전혀 화나지 않는다. 2. 3.
4. 5. 매우 화난다.

D. 당신을 지나친 것에 대해 직장 동료를 얼마나 헛하시겠습니까?

1. 전혀 아니다. 2. 3.
4. 5. 아주 많이 한다.

E.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